

서로에게 무관심한 우리

함께 생활하기 위한 노력 아쉬워

우리들... 사람들은 자신과 그 이외의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말하기를 '우리들'이라 한다.

한무리속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들'이라 칭하고 같은 과내의 사람이 또한 자신들을 '우리들'이라 말한다.


올다. 우리들은 우리들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는 낱말의 피상적 의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 낱말의 본질적 의미라고 생각되고 싶은 '함께'로서의 우리들을 말하고자 한다. 물론 '함께'라는 말을 정의하자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의 '함께'는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은(대상으로서의) 모두 행위하고 사고함으로써 하루를 채워나간다. 아침에 일어나 등교하고 강의를 듣고 귀가하는 것이 하루생활의 일관적 패턴이다. 우리들은 이 큰 가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것의 대부분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들은 거의 매일 과와 씨름의 동기, 선배들을 만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들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얼굴을 대하기는 하되 그저 뇌에 새겨진 인사말만을 기계적으로 내뱉고 지나칠 뿐이다. 우리들은 마음이 잘 통하는 몇 명-이 소수의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나고 있을지 모른다- 이외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며 사실 알고자 노력하지도 않는다.

'저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신경을 쓰겠는가'라는 생각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관상의 시작이며 '함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하므로 그대도 낯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 없이 부딪치는 친구, 선배들의 모습에 거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



말해봅시다는 경회가족 모두의 참여를 이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예기를 대학주보시는 성실성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료: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혹자는 아니 거의 모두가 나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냉담한 태도로 되돌아 올지도 모른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 생활할 수가 있는가"

나는 모두와 함께 생활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와 그리고 마음이 잘 통하는 소수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 하루중 얼마만큼의 행위와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라고 말하며 한정된 사람들은 만나기 이전에 '함께' 생활하기 위해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했었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수없이 만나는 하나 결코 만

소수로 치루어진 총학 2학기 진군식

발전위한 비판에 귀 기울이는 학생회 되어야

이번 학기도 예외없이 '진군식'이 치루졌다. 2학기의 힘찬 진군을 알리며 청년학도들의 기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진군식은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순서와 유형으로 바로 그 '소수'의 학우들을 데리고 열렸다.

그전날 있었던 정경대 진군식의 장면은 그 초라함을 이루 말할 없었다. 진정 진군식의 주인공들은 강의실안에 갇혀 있어야 했고, 몇몇 과장관(?) 학우들만이 진군식에 참여해야 했다. '범민족대회'를 치루면서 마치 '국립공원' 같다는 평을 받은 본교캠퍼스에 그 많은 학우들은 간곳이 없고 진정 즐겁고 힘차고, 당차야할 우리의 잔치마당에 손님이 적다

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노천극장에 앉아 있으면서 받은 유인물중에 현충학의 사업의 충실도를 물어보는 설문조사결과가 있었다.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케케묵은 결과를 여지없이 또 드러냈지만 정작 나름대로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유인물이었다.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를 외치던 총학도 이제는 자체반성을 통해 남은 기간의 사업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운동을 담보로 하는 '대중적으로'라면 집회에서 멀어지면 가는 학우들의 등에 대놓고 현재의 사업을 추진하

사가 아니다. 항상 진군식의 열기는 캠퍼스에 가득되어야 하고 그때 그때의 행사는 우리들의 투쟁의 열기를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싫든 좋든 '경회'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는 '총학'은 우리의 얼굴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발전'을 위한 비판'으로서 현재 우리 학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총학'이 된다면 진정 '학우들의 총학'이 될 것이다.

최한수
(경제-2)

분주한 캠퍼스 분위기

우리의 작은 의무 망각하면 안돼

지난 한주는 교내적으로 매우 활기 찬 시간이었다. 우선 교내에 불붙은 학우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2학기 진군식을 준비하는 총학의 분주함 역시 그러했다. 게다가 도서관 원공 문제며 신갈 전철유치문제, 학생회관 식당 운영문제, 신갈 스텔버스 요금 조정문제들로 들쭉날쭉한 주이기도 했다. 그런 분주함들이 살아 있는 캠퍼스를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학생활의 활기찬 속에서도 몇가지 잊고 사는 것들이 있다.

우리들 자신이 부조리의 근원을 탐색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거기에 감염돼 무관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우리들 자신이 지고 있고 신의로운 세상을 향해 한 다고 외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갖춰야 할 예의들에 인색한 것은 아닌가 말이다.

기실, 나의 주장 나의 권리는 외쳤지만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인 얼마나 인식했는가, 교수님들께 공손히 예를 지켜 인사하는 것들이나 수업시간 지키기, 레포

트 제출 등등은 사소하지만 지켜야 할 작은 책임이요 의무가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그런 것들에 인색해지며 잊고 살기 일쑤다.

가끔 우리들 내부에도 깊게 만연된 병폐의 뿌리를 본다. 기성세대와의 혼탁함을 질책하건 우리들 자신도 아직 너무 순수하지 못하다. 그것을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이라고만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청년의 나이로 성장하고 하나의 개체로 인정되는 우리들로서 담하게는 너무 공격할 뿐이다.

캠퍼스의 분주함이 좋다. 캠퍼스는 늘 학우들의 열정으로 불타야 한다. 그러나 그 분주함에 잊혀진 우리들의 균형감각이 아니다.

언제든 작은 우리들 내부에 있다는 말은 상황인식을 잘못한 탓일까?

한승호
(사회-4)

음성학적으로 생명의 근원 의미

9월 주제 '어머니'

다. 어머니가 '어'소리의 음성모음을 중심으로 하고 아버지가 '아'소리의 양성모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연으로 들릴 수만은 없는 음양의 조화가 들어있다. 자음의 '모'와 '부'는 모두 두 입술로 내는 소리

중음에는 '어머니 나리'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 것을 본다. 여기서 모어(母語)는 어머니 품에서 배운 바탕이 되는 말을 뜻한다. 즉 출생후 최초로 습득한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영어에서의 'Mother Tongue'나 불어에서의 'Langue mere'도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모국, 모교는 지금을 떠났지만, 떠나기전의 근원으로서의 나라, 학교를 뜻한다. 그것은 그리움이고 고향이며, 돌아가야 할 곳이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고 그리고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와 흠이 의미하는 대지는 음성적인 것으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모국이고 모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국어나, 나라말, 우리말과는 다른 개념이다.



김기혁 (문리대교수·국문학)

“모국, 모교는 근원으로서의 나라, 학교를 뜻한다. 그것은 그리움이고 고향이며 돌아가야 할 곳이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대부분 잊고 지나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잊고 지나친다. 어머니나 어머니말을 떠나서야 그 중요성에 가슴 사무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지나치는 않은가? 이 사색의 계절에 한번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와 관련된 단어로 '모국, 모어, 모교...' 등이 있다. 요

다. 이 경우도 '아빠' 또는 '엄마'로 요약된다. 동양의 음성학에서 '어'는 음성모음이고 '아'는 양성모음이다. 이러한 음성, 양성은 서양에는 없는 동양의 소리인식 방법이

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의 차이는 '모'는 코에서 나는 소리이고, '부'는 입에서 나는 터질소리라는 점이다. 어머니와 관련된 단어로 '모국, 모어, 모교...' 등이 있다. 요

외대앞 좌회전 금지 안지키는 현실

학내 규범부터 지키는 학생들의 모습 아쉬워

배운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교육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최고 학교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자정인이라고 부른다. 이는 이상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뜻하기도 한다. 옳은것을 보고는 칭찬과 격려를 할 줄 알고 잘못된 사항은 지적 하고 또 받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제부터인지(아마도 성대교내 주행사건이후 었으리라) 학교의 길에는 중앙선이 생기고 2호관 민주광장 앞길에는 분명히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 신호가 무엇인지 몰라서인지 그저 계속해서 좌회전 금지를 무시한 채 차량들이 주회 하곤 했다.

요즘은 그래도 좌회전을 하지 않는 차들이 눈에 띄지만 아직도 좌회전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경적을 울리는 차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지켜야 할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규약이라면 그것이 다소 개인에게 불편을 줄지라도 좀더 좋은 규약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 너무 답답한 편리함과 단순함에 길들여져서 도로의 공익과 편익을 저 버리는 것은 아닐런지.

교내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의 학내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제2의 성대교내주행사건을 재연 할 필요는 없다. 서로 양보하고 규칙을 지킬때 점점 늘어날 차량 사고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홍현표
(사회대-행정3)

교수동정

이상언교수 미국행

【서울캠퍼스】▲이상언(외대-정형외과)교수=오는 20일부터 9일간 학회참석차 미국방문 ▲이궁호(치대-치의학과)교수=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제소아치과학회'참가차 도일

동문모임

세종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전주교·여고=오늘 오후 6시 경회회관

【수원캠퍼스】▲사적급정교=오는 16일, 5시30분 공대휴게실 ▲제물포고=오는 16일, 5시30분 외대앞벤처 ▲광주일고·전남여고=오는 17일, 5시30분 공대휴게실 ▲강릉명륜고=오는 16일, 5시30분 공대앞잔디밭 ▲부산남고=오는 16일, 5시30분 공대휴게실 ▲내성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박수열(생물-2) ▲김도형(국문-2) ▲황은진(국문-2) ▲정상진(영문-2) ▲전충호(화학-3) ▲김형준(물리학과) ▲최원섭(물리-2) ▲이기형(국문-85) ▲박문수(화학-3) ▲윤지현(의상-2) ▲임양수(무역-3) ▲전용우(경제-4) ▲윤종원(행정-3) ▲이철호(의대-2) ▲황인철(의대-2) ▲전영욱(한외-4) ▲최동준(한외-1) ▲유재원(한외-1) ▲고성호(한외-4) ▲김현정(약대-1) ▲박홍석(체육-4) ▲김송열(비교-2)

분실

습득자 분사 편집실로

【수원캠퍼스】▲성정현(무역-3) 지갑·학생회관1층 화장실에서.

습득

분실자 분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김화정(생물-88) ▲박정민(영문-91) ▲박성근(생물-89) ▲김태규(사학-88) ▲노용득(철학-85) ▲박민희(사학-87) ▲이항복(영문-82) ▲김보연(생물-89) ▲선지훈(지리-91) ▲원종우(철학-89) ▲백성만(법학-83) ▲홍성욱(법학-84) ▲원성훈(정치-87) ▲한영모(치외-87) ▲서희원(기약-90) ▲김승희(기약-87) ▲김혁희(체육-88) ▲노호성(체육-84) ▲문성원(체육-88) ▲김소영(체육-86) ▲김해진(체육-88) ▲황주연(체육-89) ▲염상열(체육-87) ▲이민숙(체육-88) ▲황인재(태권도-84)

국문과 초청강연

국문과에서는 오늘 오전10시 정경대 111강의실에서 일본 정경대학 김양기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에서 김박사는 '한·일 양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관하여 연설하게 된다.

체대학회 원고모집

체대학회는 '학회지발간'을 위하여 오는 19일까지 원고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시, 소설, 수필 등으로 문예작품이면 대부분 가능하고 체대 학생회실에서 원고를 받는다.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세로



슈바빙의 낭만, 라인강의 예술과 기적, 부란덴부르크, 통일독일의 위용 —
그러나 가슴에 가장 크게 새겨진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재원 (삼성물산 해외전략팀 근무)

'88년 1월 삼성물산에 입사, 지난 90년 1월부터 12월까지 독신과전 지역 전문가제로 독일에서 3년간 현지인어, 생활습관, 문화와 제도 등을 자유롭게 익히고 돌아왔다. 독일이 통일되던 당시 돌리던 베를린 장벽에서 자신이 직접 장벽 한 조각을 갖고 돌아와 틈틈이 깨내보며 그때의 경험과 다짐을 다시 새기곤 한다.